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짱**동, 개**똥**, **맹구** 중에서 남은 글자라고 하며,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에서는 **신**서준, 신지호, 신**짱**군^[51], 신민**구** 사이에서 남은 글자로 나온다.

대만 중국어 더빙판에서 본명은 野原新之助(예위엔신즈주)^[52]고, 평소에는 小新(샤오신)^[53]으로 불린다. 2002년 극장판에서는 히로시와 미사에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野原信之介^[54]라는 한자 표기가 나오나, 이는 공식적으로 한자 표기를 설정했다기보다는 전국시대 인물들이 발음에 맞춰 임의로 한자 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작에서는 **폭풍을 부르는 유치원생** (嵐を呼ぶ園児)으로 소개된다. 이를 반영해서 **포효하라! 떡잎 야생왕국**,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를 제외한 8기부터 20기까지의 모든 극장판에서는 제목에 **폭풍/태풍을 부르는**이 붙었다.^[55]

▽ 4.2. 나이

[편집]

1990-2020년 기준상 30년 동안 나이는 5살이다.^[56] 극장판 **부리부리 3분 대작전**에서도 등장했던 괴인들중 기타 사무라이가 "노하라 신노스케! 너는 13년 동안 5살짜리 어린애냐!"라는 대사가 나왔다. 그러나 크레용 신짱의 완결이 나지 않은 시기에 작가인 **우스이 요시토**가 세상을 떠나면서 끝내 영원한 유치원생이 되어버렸다. 다만 만화판에서 작품 전체의 전개와는 별개, 즉 외전에서 연필 신짱이라는 초등학생 신노스케가 나온 적이 있다. 물론 사실상 이미지 자체는 기존의 신짱이랑 상동한 정도에 불과.

애니판에서는 푸념하는 짱구에게 엄마가 나중에 나이 먹고 지금 일을 생각하면 재밌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음 장면으로 청년으로 성장한 신노스케가 여자친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 그 일을 회상하며 웃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처음엔 뒷모습만 나오다가 여자친구가 왜 웃냐고 질문하자 예전의 재밌었던 일이 생각났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돌리며 얼굴이 공개됐는데 참고로 청년 짱구는 엄마의 얼굴형에 어린 신노스케 눈을 가지고 있었다.^[57] 그 외에 **아노하나**와 콜라보를 해서 짱구와 친구들의 10년 후 모습이 나온 것도 있다.

▽ 4.3. 외모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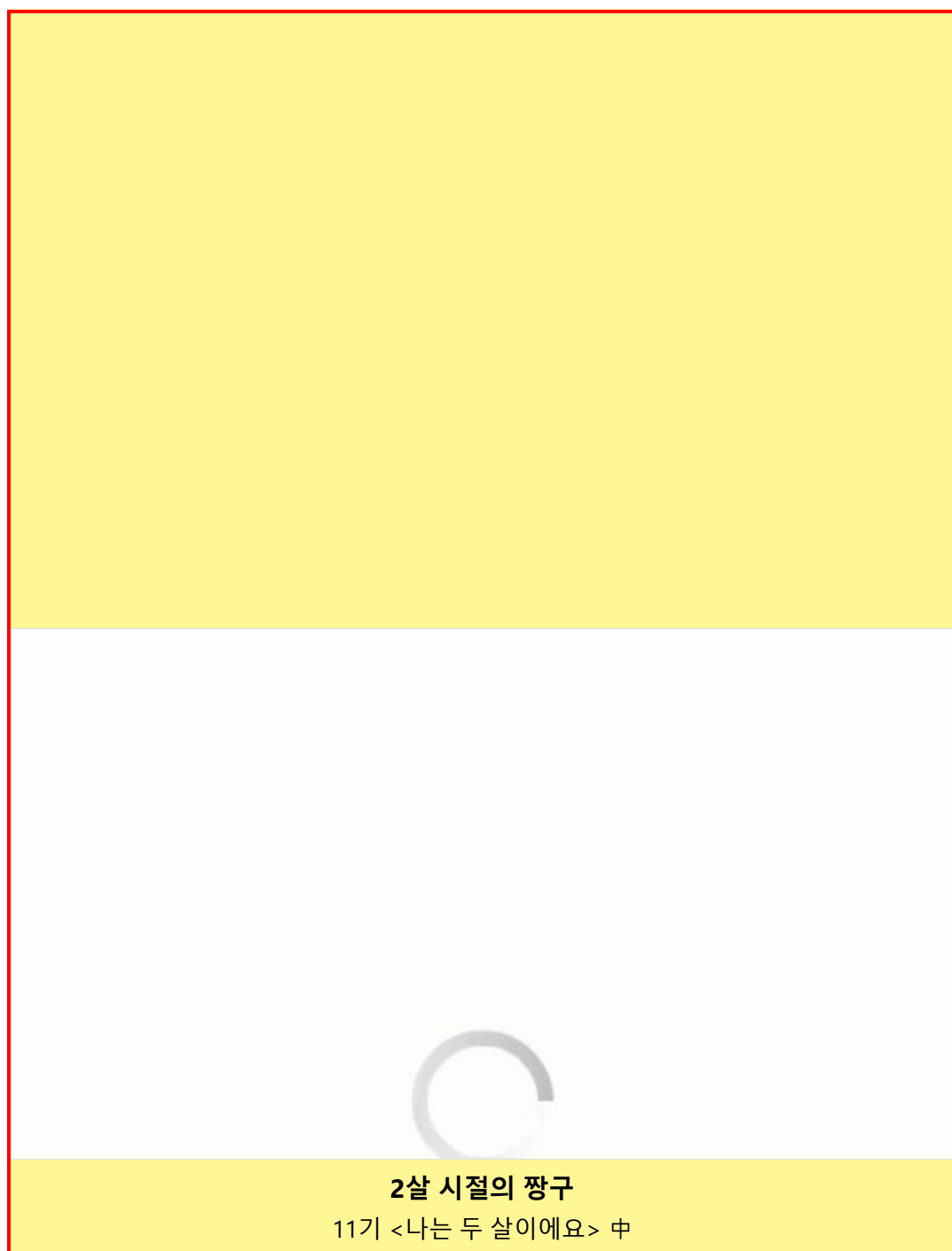
머리통이 감자를 닮아서 감자머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상당히 특이한 머리통 형태이기는 하다. 그런데 동생인 히마와리를 비롯해 토오루, 아이, 네네 등 신노스케와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캐릭터는 많은데 신노스케만 감자머리라는 별명이 있다. 아무래도 같은 얼굴형을 한 캐릭터 중 신노스케가 거의 반삭 수준의 가장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서 더 감자 같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얼굴형을 비롯한 전체적인 외모는 할아버지, 머리색과 특유의 송충이 눈썹은 아버지를 닮은 외모로, 거의 친가 쪽에서 많이 물려받았지만 눈만은 어머니와 똑 닮았다. 짱구와 아빠는 붕어빵! 에피소드에서 짱구 나이의 아빠 사진을 보여주는데 짱구와 똑같이 생겼다. 다만 어른제국의 역습에 나온 유년 시절과는 다르게 생겼다.

또한 눈이 특이한데 눈 정중앙에 안광을 그려넣는다. 그래서 동공이 하얀색이라고 착각될 정도. 물론 눈에 안광을 가진 여성 캐릭터는 많으나 오카마 캐릭터 정도를 제외하면 남성 캐릭터는 짱구가 거의 유일하고, 주인공이라 가장 유명해서 한국에선 비슷한 눈을 가진 캐릭터를 가리켜 짱구 눈을 가졌다고 한다.^[58]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모든 매체에서 정면샷으로 그려진 적이 손에 꼽는다**. 이는 원작자 **우스이 요시토**의 작화 문제 때문이었는데, 캐릭터를 측면샷만 생각해서 디자인했다보니 정면으로 그리면 비율이 급격히 망가지는 일이 많아서 그냥 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3D 모델링이나 피규어 상품들은 정면에서 보면 이질감이 꽤 커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면샷도 얼굴 만큼은 측면으로 돌리는 일이 많다. 일단 원작 특별편인 '**춤추는 신노스케**' 편에서는 짱구의 **머그샷**을 통해 정면샷이 나왔다.

캐릭터의 모델은 작가의 데뷔작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だらくやストア物語, 엉망진창 수퍼마켓)에 나오는 **㉠니카이도 신노스케**(二階堂信之介). 정확히는 니카이도 신노스케의 **㉠회상 속 어린시절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다. 짱구와는 달리 **전간기**(쇼와 원년)에 태어났으며 **야마가타현** 출신이라고 한다.



2살 시절의 짱구

11기 <나는 두 살이에요> 中

두 살 때의 모습이 매우 귀엽다. 얼굴은 머리카락이 다섯 가닥밖에 없는 걸 빼면 지금과 다른 게 없고 지금도 귀엽게 생긴 건 여전하지만 이때는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기여서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더 귀엽다.^[59]

신 크레용 신짱에서는 머리를 기른 모습도 공개되었다. 한국판 2기 30화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온 적이 있으나 알고 보니 엄마가 싹운 가발이었다. 아빠 발모제를 다 써 버린 별로 일종의 서프라이즈를 해 준 것이다.

▽ 4.4. 의복

[편집]

주로 입는 옷차림은 원작,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에서는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반바지, 애니판에서는 빨간 티셔츠에 노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신발은 주로 노란 운동화를 착용한다. 잠옷은 흰색에 여러 색이 그려진 잠옷을 입고 있다. 이 외에 다양한 의상을 착용한다.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우리들의 공룡일기](#)에는 원작의 의상은 물론이고 애니판 의상도 입는다. 거기에 오리 지널 의상^[60]을 착용하는 등 본편보다 더 다양한 조합을 입고 있다.^[61]

하나의 의상만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옷들을 여러 벌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추가로 주황색 점퍼를 입는다.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같은 색, 같은 디자인의 옷들을 앞에다가 놔두고 뭘 입을지 고르거나, 종종 친구들에게 자신의 옷을 빌려주는데, 본인이 입고 있는 동일한 색상을 가진 상하의다. 잠옷 역시 마찬가지다.

▽ 4.5. 성격

[편집]

짱구는 절대로 멍청하지 않소이다. 좀 괴짜인 구석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속이 있는 아이란 말이오.

[타카쿠라 분타](#)

아저씨... 저기요... 저는 짱구의 [저런 면](#)을 좋아해요...

[사토 마사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트러블 메이커](#)이며 다분한 [마이 웨이](#)로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굴치 아프게 하고 있다. 보통 애들에 비해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흥미가 생긴 건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아이들 특유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뭐든 자신이 옳다는 전제하에 행동하다보니 답답하게 굴 때가 많은데, 가령 피자 가게에 주문을 하려고 하면 주문을 해놓고 [저희 집 주소 모르니까 알아서 오세요](#)라고 해서 난감하게 하거나^[62], 남의 집에 잘못 전화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63] 이렇다보니 신짱한테 뭘 전달하는 심부름을 맡기면 열에 아홉은 어딘가 꼬여버리고, 신짱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되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64] 그나마 다행인 건 보통 어린이들과는 달리 [미아](#)가 되더라도 자기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남들이 길을 잃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길 잃은 걸 알더라도 이 시점에선 이미 누군가 신짱을 보호해주면서 지적해주는 상황이라 안전하다.

대범한 면도 강한데, 초반에 불량배들, [원장님](#)을 처음 봤을 때 다른 애들이 얼굴이 무서워 피할 때 맹구와 더 붙어 겁먹지 않았고, 어른들에게 쫓지 않고 할 말 다하고 농락까지 하고, 감기에 걸려 혼자 집에 있었을 때^[65] **도둑 2명이 들어오자 제압했다!**

만화 연재 초기에는 말썽이 지나친 나머지 일본이나 한국, 그 외 크레용 신짱이 방영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신노스케를 따라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만화에 나오는 것은 따라 하지 말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초기에 나왔다.^[66] 만화의 노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

있던 연재 초반 즈음엔 신노스케의 성격이 상당히 무분별한 무개념으로 묘사되었으나^[67], 동생 히마와리가 태어난 이후로 만화책 후권을 진행할수록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이해하는 등 점점 더 철이 들고, 터뜨리는 사고의 스케일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5살이라는 걸 고려하면 성장하면 나아질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순화되었다. 대신 신노스케가 초반에 하던 말썽은 동생 히마와리가 대신 맡게 되었다.

훗날 **옆집의 닭살 부부**와 **임시 맨션 수험생** 같은 민폐 캐릭터가 추가된 이유^[68]도 이 점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당하는 역할이 생겼다는(주로 히마와리한테)^[69] 성격도 무덤덤했던 초기와 달리 감정기복이 매우 심해진 입체적으로 변한 편이다.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조연들이 점점 캐릭터가 강해지지만 그렇다고 존재감이 희미해지지는 않는다. 단연 독보적인 **마이페이스**로 어떤 상황도 결국 본인이 중심에 서는 캐릭터. 주인공이니까 이 점은 변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특유의 활발함과 반대로 **엄마**를 닮아서 어린이답지 않게 게으르고 귀찮음에 찼은 모습도 겸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놓고 싶어서 거절했지만, 지금에 들어서는 그냥 귀찮아서 거절한다.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뒹굴거린다.^[70] 이 때문에 사고를 치다가도 금세 흥미가 떨어져서 자리를 뜨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은 신경도 안 쓰고 남일 마냥 방관하다 핀잔을 듣곤 한다.^[71] 대표적인 예시로 **카자마 토오루**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데 평소에는 신짱 쪽에서 집요하게 앵겨서 토오루가 어쩔 수 없이 어울려주다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신짱 쪽에서 귀찮아하거나, 이미 흥미가 떨어져서 가버리는 바람에 토오루만 바보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공식에서 신짱을 부르는 별명이 **폭풍을 부르는 유치원생**이라는 걸 고려하면 그야말로 **태풍의 눈**에 가까운 캐릭터. 신짱의 말버릇 중 하나인 **이런 이런(やれやれ)**^[72]은 이런 매사에 귀찮아하는 성격과 자기 일도 남 일 보듯 대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 물론 매사에 의욕이 없는 건 아니고, 어떨때는 스스로 좋은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일처리를 대충 하다보니^[73] **와장창**나는 게 비일비재하다.

극장판 18기에서는 아예 자기 장래희망을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할 정도로 생각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예쁜 누나나 액션가면 등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연관된 일에는 의욕을 보이며, 이외에 의욕을 보였던 건 **요요기 코지로**에게 검도로 졌을 때였다. 사실상 이때가 신노스케가 유일하게 투지를 가졌던 때였다. 이렇다보니 미술에는 재능이 없는데, 본인이 워낙 매사에 귀찮아하다 보니 일일이 공을 들이는 작업에는 취약하다. 점토나 눈을 조각해서 만들 때도 대충 뭉쳐놓은 걸 내놓거나^[74] 동물원 동물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 **레서팬더**를 그리기 귀찮다고 **자이언트 팬더**를 그려놓고 레서팬더라고 이름을 쓰며, 기껏 공을 들여 만들더라도 **명란젓** 같은 일반인의 센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원작 특별편인 '미라클 마커 신짱'^[75]에서도 본인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건 스스로 자각하는 듯. 그나마 점토로 만든 **천안문 광장** 탱크라든가 **코스프레** 복장 같은 건 진짜처럼 공을 들여서 **슬데없이 고퀄리티**일 때가 많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도 엄마랑 비슷한데, 엄마가 **작심삼일**로 포기해서 고치지 못하는 데에 비해 짱구는 **자기애**가 넘쳐서^[76] 혹은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리는 면이 크다. 잘못을 지적해도 칭찬인 줄 알고 쑥스러워하는 것이 그 예. 다만 나나코 누나같이 진심으로 대하는 상대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을 고치고 격식을 차리는 걸 보면 그냥 귀찮아서 개선하지 않는 듯하다.

자신이 보고 느낀 건 웬만하면 전부 **놀이**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작중에서 신짱이 보이는 온갖 기행들을 보고 등장인물들이 놀라서 뭐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놀이**라고 답하는 게 주 패턴.^[77] 초창기에 불량배를 만나는 일이 있어도 겁먹긴커녕 이건 무슨 놀이기에 나한테 이러냐?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78] 매사에 남의 일 보듯 행동하는 것도 단순히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이런 성격 때문. 짱구가 사고치고 나서 부모님이 고개 숙여 사과하면 '요새 엄마 아빠가 자주 하는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디서 말싸움이 일어날 때는 **자기는 재밌는 쪽 편**이라는 이유로 양쪽 편 모두의 말을 반박하며 불을 지피곤 하며, 심지어 자기 때문에 싸움이 나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덧붙이다가 혼나기도 한다. 한마

디로 매사에 진지하지 못한 성격이지만, 이런 성격 덕분에 항상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를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먼치킨**성을 보이곤 한다.

역시 똑같잖아.. 상냥하면서, **괜히 아닌 척하고.**

카네아리 타미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실 **속스럽을 많이 탄다.** 핀트가 어긋나긴 해도 일단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 몸을 배배 꼬거나, 아예 너무 긴장해서 굳어버리곤 한다. 이는 초창기 때부터 주욱 묘사되던 성격으로 연재 초중반부까지는 남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을 때 긴장해서 뻗뻗하게 굳어버리곤 했다.^[79] 다만 평소에는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남들이 혼내는 상황에서도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아니요, 별 말씀을요~**라고 부끄러워하거나, 바지에 구멍난게 창피하다고 **바지를 벗고 다니는** 등 핀트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일이 더 많기에 묻혀졌으며, 연재가 진행될수록 태연하게 대하는 일이 많아져서 부끄럼을 타는 묘사는 개그로만 나오지만^[80] 그 대신 **츄데레** 기믹이 생겼는데 작중에서 한창 놀려먹던 조연과 헤어진 후, 조연한테 곤란한 상황이 생기자 다시 와서 말 없이 도와주고 갈 길을 가는가 하면, 티격태격하던 **친구**한테 곤경에 처하자 슬쩍 도와주고 딱히 널 생각한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둘러대는 등^[81], 말썽을 부릴 때 외에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종종 비춰졌다. 이런 점이 잘 드러난 건 **극장판 18기.**

매사에 태평해보이고 엄마 외에는 무서울게 없어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건 대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면 다른 또래 애들처럼 겁을 먹긴 한다. 히마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 밤에 혼자 화장실 가러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게 무서워서 떠는가하면, 엄마한테 혼나서 저녁을 굶었던 날 냉장고를 뒤지려는데 무섭다고 후레쉬를 들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초창기에는 밤에 공포영화를 봐서 새벽에 화장실 가기 무섭다고 절절매다가 술에 취해서 온 아빠의 신음소리+미용팩 바른 엄마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바지에 큰 걸 지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남들과 있을때는 무섭더라도 평소처럼 능글맞은 말투로 옆에서 겁을 먹은 사람을 놀리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겁먹은 것을 감추기 위해 이러한 것으로 이때는 표정^[82]으로 구분된다. 극장판 2기에서 **아나콘다 백작**과의 첫만남에서 알 수 있듯이, 신짱이 마냥 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각하더라도 겁쟁이 취급 받기 싫어서 오기를 ㄴ리는 것.

은근 돈을 밝히는 면도 있는데 이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기믹으로 3권에서는 마사오가 동전을 얹자 동전 하나를 몰래 밟고 빼돌리려 하거나, 마사오의 돈을 지켜주는 보디가드를 자칭한 뒤에 1만 엔을 청구했다. 이후에도 얼마를 원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는 억 단위를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며, 이러한 성향은 부리부리자에몽한테도 반영된다. 그러나 이는 항상 지나치게 아끼려 드는 엄마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83] 수전노라기보다는 돈 욕심이 많은 것에 가깝다. 짱구 엄마가 허영심이 많긴 해도 어느 정도 타협은 하는 데 비해, 짱구는 엄마의 비싼 물건을 몰래 쓸 때는 역시 비싼 건 다르다는 등 값이 나갈수록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만 있다면 돈을 얻을 기회는 그냥 건어차 버린다. 가령 1,000만 엔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넘기라고 하자 이것만 있으면 초코비를 산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넘겨야 하냐고 거부하다가 아빠가 딜을 제안하자 보통 사람이라면 듣지도 않을 제안에, 신짱구는 마법소녀 마리의 실러 **그라비아** 사진집과 요구하고는 그대로 넘겨버렸다. 그리고 5등 액션가면 수건 경품을 얻기 위해 1등 상품인 흰둥이 1년치 사료를 맞바꾸기도 한다. 물론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는 조금씩 영악해지긴 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 막상 절약을 하려 해도 흥내 내기에 불과해서 본의 아니게 낭비만도 못한 사고를 치기도 한다.^[84]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거나 하기보다는 방임하는 걸 선호한다. 때문에 누군가 이미지 체인지로 하려고 하면 이를 거부하는데 문제는 **내가 알던 그 '꼴 사나운 모습'으로 돌아와라**라는 뉘앙스에 가깝게 말해서 화를 돋구는 편. 그나마 억지로 변하려다 고생하는 캐릭터를 상대로

는 위로가 된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런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 캐릭터성만 보면 **호색한, 배신**^[85], **민폐, 4차원, 오타쿠**^[86] 등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데도 주인공인 특이한 캐릭터. 하지만 그럼에도 드문드문 보이는 그 나이대 어린다운 순수함과 의외의 면모를 보면 주인공은 주인공이다. 애초에 천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달라 하면 귀찮은 티는 다 내면서도 결국 도와준다. 결과를 장담 못할 뿐이며 원작에서는 신짱의 무심한 면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런거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사고칠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한건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 아닌 도움**으로 흘러가기도 한다.^[87]

▽ 4.6. 운수

[편집]

복권 운이나 뽑기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뽑기를 할 때마다 당첨이 된다. 한 번은 취한 신형만이 신짱아와 신짱구에게 복권을 줬는데 신짱구 것만 **1,000만 엔** (현재 기준으로 약 1억원) 당첨이어서 신형만과 봉미선이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신짱아가 **그걸 먹어버렸다**. 파칭코에 간 에피소드에서는 신형만이 돈을 다 끌어박아도 오오아타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짱구가 마지막 구슬로 오오아타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주사위 운은 **다이스** 갓한테 버림받았나 싶을 정도.(...) **자기 여동생, 애완견**, 심지어 인형한테까지 진다.^[88] 그리고 짱아와 했을 때도 계속 함정에 걸려 뒤흔들려 사기를 쳐서 역전했으나 또 함정에 걸리는 바람에 다시 출발지점으로 갔다. 이외에도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하루 종일 재수 없는 날도 있는데다 짱아와 관련된 일에서는 유독 타이밍 안 맞게 봉변을 당하는 일도 많기에 운에 대해서는 **케바케**다.

▽ 4.7. 미래상

[편집]

애니와 원작에선 미래의 모습이^[89] 언급되었는데 이게 하나같이 매우 비범하다. 반면 성격 자체는 다소 성숙해지긴 했어도 어린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묘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패러디한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래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지배하던 컴퓨터에게 이상한 퀴즈를 내서 컴퓨터를 폭파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극장판에서도 미래 짱구의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 잠입용으로 액션가면의 옷을 입고있어서 고우 고타로^[90]의 뒤를 이어 액션가면 배우가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카스카베의 미래에 대해서 다룬 극장판에서 신짱구가 미래에 액션가면이 된다는 중요한 사건이 언급되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잠입용, 코스프레용으로 입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91] 다만 그와는 별개로 세계구급 대규모 기업인 황금전자에게 스카웃을 받는다던가, 인생을 반쯤 말아먹다시피한 철수와 맹구를 제외한 다른 방위대 멤버들과는 달리 2만원에 달하는 초코비를 사먹는 등 상당히 여유롭게 사는 듯한 묘사가 나온다는가 하는 등 여러모로 범상치 않은 묘사가 보인다.

참고로 작중 친구들과 다르게 어른이 된 신짱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데 입이나 뒷모습은 보이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장면이 없다. 심지어 가면을 벗어서 드디어 얼굴이 보이니 싶더니 햇살이 얼굴을 가려주신다. 다만 얼굴 모양은 아버지를 닮았다. 더불어 미래의 히마와리가 미인인 걸 보면 미래의 신노스케 본인도 꽤나 미남인 듯하다. 마지막에도 햇빛을 되찾은 다음 수많은 여자들을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단순히 햇빛을 되찾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모여든 것이라고 보긴 힘들 뿐더러, 여성들 대부분이 얼굴을 붉히고 온

걸 보면 일단 훈남인건 확실한 듯하다.

신짱구의 성인 시절이 나오는 동인작품에서 얼굴 모양은 대부분 아버지와 얼굴 모양과 비슷하게 묘사한다. 물론 외모는 [모에선](#) 덕분에 [간지](#)가 있다. 다만 원작에서 한 번씩 개그성으로 그린 성인판 신짱구는 그냥 지금의 모습에서 키와 덩치만 커진 상태다.

원작에서 외형만 그대로고 성인이라는 설정의 단편들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건제하며 그나마 가난한 목수로 비교적 소박하게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기는 한데 그 와중에도 나나코와 이미 결혼해 있는 등 평범함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온다.

▽ 4.8. 지력

[편집]

바보인지 천재인지 쉬이 짐작하기 어려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92]

평상시에 말뜻을 잘 못 알아 듣고 훗날의 이야기를 다룬 연필 신짱에서 산수를 잘 못해^[93] 학교에 남는 등 바보같은 구석이 보이기는 하나 [엄마와의 약속](#) 100조를 전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귀찮아서'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4.9. 신체 능력

[편집]

손 하나로 철수를 여유롭게 붙잡는 짱구

한국판 2010년 8월 2일 방영분(10기 1-1화).^[94]

..!! 야성적인 살기랄까 뭔가 엄청난 파워가 느껴졌다. 이 녀석 보통내기가 아니야.

원작 크레용 신짱 45권의 쇼우^[95]

부모님이 초인이기 때문인지 그의 신체 능력 또한 비범한데, 후술할 극장판 시리즈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편에서 보여준 것만해도 엄청난데 스파이더맨 마냥 벽을 기어다니거나, [96] 자신의 키의 몇 배나 되는 높이를 간단히 뛰어오르는 도약력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일상이고, 전봇대와 나무를 자유자재로 기어 오르는 등 최소 **성룡**이나 **이연걸** 째는 돼야만 가능한 일과 5세로는 생각되지 않는 완력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나무타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신짱의 특기로 나오며 주로 이 때에는 원숭이 코스튬을 하고 나무를 타는 모습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느긋한 성격에 싸움을 싫어하고 승부를 귀찮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별로 부각되지 않을 뿐,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방위대** 내에서도 **유리마저 훨씬 뛰어넘는 진짜 최강자**이며 원작 45권에선 상급반인 장미반의 치타 패거리를 단신으로 털어먹고 해바라기 유치원의 짱으로 군림했던 "쇼우"라는 이름의 전학생이 등장한 적도 있는데 그런 쇼우조차 짱구의 먹살을 잡는 순간 보통내가 아님을 느끼고는 [97] 재빨리 물러났을 정도다. [98] 이는 다르게 보면 짱구 역시 마음만 먹으면 **장미반** 패거리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되고 훗날 극장판 24기에서 **보라**를 위협하는 **치타**와 **히토시 & 테루노부**를 장난치듯 단신으로 간단히 털어버리며 입증했다. 그 밖에도 애니판 한정으로 등장했던 후술할 돌돌맨 컨셉 애피소드에서는 방위대 친구들을 **배빵 한방에 기절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다.

이보다 한참 전인 **스모**대회에 나간 에피소드에서도 경기 도중에 오줌이 마려워지자 반대편(그러니깐 상대 선수의 뒤)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상대였던 **스모 유치원부 챔피언**을 밀어내고 우승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 꽤나 과거부터 일관적으로 힘이 강한 것으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짱구의 비범함은 같은 유치원생뿐만 아닌 초등학교 이상에게도 먹혀서 훈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짱구가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애니에서는 9기 5화 정의의 마스크맨 편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발자전거로 스쿠터와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는 등 비현실적인 수준을 보여주자 자전거 경주를 제안했던 불량학생도 패배를 인정했다.

원작의 한 애피소드에서는 짱아에게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서랍장의 물건들을 단신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모자라 역으로 뒤집어 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그 직후 허리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유모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하긴 했지만 [99] 서랍장의 물건들이 많을 때 [100]는 자기 부모님+봉미소라는 성인 세명이 동시에 막아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이었으며 순간적인 파워에 한해서는 이미 부모님마저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모는 어렸을 때부터 여전했는지 두 살 때의 이야기를 다뤘던 애니메이션 11기의 한 애피소드인 "처음으로 이를 닦아요"편에서는 이쁜 누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닦는 것을 거부하면서 엄마에게 달라붙었는데 이때는 그 봉미선조차 신짱을 제대로 떼어내지 못했으며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봉미선에 매달려서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101] 심지어 아예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히로시가 예쁜 여자 사진을 보여주니까 배에서 대놓고 소리가 울릴 정도로 [102] 격하게 반응한 적도 있다.

달리기도 엄청나게 빠른 것으로 시리즈 내내 꾸준히 묘사된다. 사실 달리기 같은 경우도 신짱이 좀처럼 진지하게 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본실력을 좀처럼 발휘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 [103]에서는 가속이라도 하듯 빨라진다. [104] 그 외로는 무얼 타거나 혹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계열의 운동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이다. 수영이나 [105] 스키, 심지어 보드 등이 있다. [106] 심지어 처음 하는 운동도 쉽게 익히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신형만도 타지 못하는 서핑을 한 번에 타는 것에 모자라 비트판으로까지 타거나, 히로시가 1~2개 정도 하는 물수제비도 8~10개 정도 하는 등의 비범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편이다.

얼음도 매우 잘 타는 모습도 여러번 보여줬다. 특히 신형만의 첫사랑이 나오는 시골에 내려가는 에피소드때는 시골 애들 앞에서 트리플 악셀도 보여줬다.

신체능력과 별개로도 운동신경도 엄청 좋은 편이다. 원작 만화에서는 [모토히사](#)의 비비탄을 피하는 와중에 차 한잔을 마시는 여유까지 보여준다.

유연성 역시 뛰어난데, 2기 40화에서 엄마랑 발레교실 갈 때 몸푸는 모습을 보면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다. 수강생들도 짱구에게 발레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돌머리 기막이 있는지 가끔 가다 나오는 묘사로 봉미선이 신짱에게 꿀밤 체벌을 내린 직후 되려 본인이 아파하는 묘사가 나오기도 했다.^[107]

간지럼을 잘 태운다. 극장판 시리즈에서도 자주 출현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을 당한 상대는 십중팔구 폭소하는 것이 일반적.^[108]

방귀 힘도 좋은 편, 극장판에서는 방구탄 뽕뽕이라는 이름과 함께 공중에서 방귀로 이동하는 장면도 종종 나오며 성인 남성도 밀어낸다.

신짱이 8살이 된 훗날의 이야기를 다룬 연필 신짱에서는 철봉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걸로 4학년의 타이다로를 제자로 삼게 된다.^[109]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할때도 엉덩이의 힘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엉덩이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정도이니 야구나 축구로 진출한다면 대성할 가능성도 높다.

▽ 4.9.1. 검술

[편집]

원작과 국내 미방영분 애니메이션 신노스케가 [무사시노 켄타](#)와 만나 [검도](#)를 하는 연속 에피소드가 있는데, 엄청난 재능과 실력을 가진 걸로 나온다.^[110] 이때는 [요요기 코지로](#)라는 소년에게 패배하고 작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부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이 라이벌로 여기던 요오기를 준결승전에서 물리친 후 결승을 치르지 않고 그만두었다.^[111]

이후 무사시노 켄타는 수행을 떠나려는 도중 신짱과 마지막 대련을 하는데 이후 신짱의 공격으로 **자신의 옷이 베인 것**을 보고 신짱이 검도를 계속했으면 세계 최강이 됐을 것이라는 평까지 남긴다. 후술할 흑부리 마왕 피엘 죠코맨과의 전투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선견지명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

검도 에피소드 자체는 이것으로 끝이지만 이후에도 10기 초반이나 16기, 29기처럼 칼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부 일관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 4.9.2. 극장판

[편집]

